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1.07

020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 故 김중업 건축사의 숨결을 느끼다

광주MBC문화방송국 탐방

창조도시 광주 1년을 맞이하며...

기업탐방 반석기초이앤씨(주)

### 시론

창조도시 광주 1년을 맞이하며\_ 이우용

###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모차르트의 도시, 잘츠부르크\_ 조용준

### 근대건축물 답사

광주MBC문화방송국 탐방 - 건축사 故 김중업의 숨결을 느끼다

### 건축과 도시계획

전주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의 변화-제4화\_ 김현숙

### 사람 & issue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전문가\_ 노경윤

### 설계경기

전도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및 전시물 신축공사

### 기업탐방

중·저층 건축기초 전문회사 반석기초이앤씨(주)

광주MBC문화방송국  
 故 김중업 건축사/1986作



▲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저 (2011) - 김중업의 대표작  
 전통건축 지붕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사뿐히 하늘에 띄워 올린 지붕으로 살아있는  
 지붕선의 조형미를 느낄수 있다.

# 창조도시 광주 1년을 맞이하며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창조공간문화지도 만들기

## Cultural Map of Creative Space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5기 시장 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6월 30일 광주NGO센터에서는 <민선5기 1년, 광주시 문화정책 진단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시민소통마당이 열렸다. 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광주의 차별화된 문화 가치를 정책이 어떻게 만들고, 지원하고, 시민과 소통해가는지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었다. 한마디로 아직 광주는 차별화된 정체성이 모호하고, 그로 인해 대표적인 도시브랜드가 부재한 도시로 진단되었다.

### 계속 사라지고 있는 공간들...

그런데 바로 이날 30년의 역사를 간직한 광주 최초의 백화점이었던 화니백화점이 무너졌다. 아니 무너뜨렸다. 얼마 전에는 광주 공원에 위치한 시민회관의 절반이 훼손되었고, 한해 전에는 거북이 신화를 간직한 알모양의 구동체육관이 사라지고 그 곳에 빛고를시 민문서관이 건립되었다.

그 몇해 전에는 5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태평극장이 사라져 주차장이 되었고, 또 그 한두해 전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골목구조와 김구 선생의 이야기를 지닌 학동8거리와 백화마을이 사라졌다. 그뿐인가. 5.18민중항쟁의 역사유적공간들은 구도청 건물, 교도소, 국군병원, 보안부대 등 몇 개 만 겨우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졌다. 아니 계속 사라지고 있다.

창조도시의 출발은 도시정체성이다. 그래서 정체성이 담긴 공간은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 공간을 지금 여기의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즉 창조공간으로 재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창조도시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나 광주는 첫 단추를 잘못 꿴 듯하다. 창조도시 광주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광주정체성(광주성), 광주다움, 광주화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광주성이 담긴 공간을 지켜서 재생하는 것이다.

특히 광주의 역사성이 묻어있는 공간들을 가장 많이 간직한 구도심 지역은 '유휴 폐공간을 활용한 창조공간 재생'을 도시재생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미 사라진 명소들, 예를 들어 광주읍성과 경양방죽, 남광주역사 건물 등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한편으로 반갑다. 아직 태봉산이나 시민관, 옛YWCA건물, 옛녹두서점, 전남대 정문앞 다리 등의 복원에 대한 얘기는 없어 아쉽지만, 이제 본격적인 복원의 역사가 광주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것같아 다행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복원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파괴하는 역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언제까지 사람내음 나는 광주의 역사적 흔적을 지워갈 것인가?

광주시민들의 삶의 체취, 기억, 이야기가 담긴 공간들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알리고,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창조공간문화지도(Cultural Map of Creative Space)를 만들자.



이무웅 교수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cul@jnu.ac.kr



문화부흥을 결정한 광주시민회관

### 광주의 도시정책성 확립 필요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자. 가장 차별화된, 가장 광주다운, 내내의 적으로 가장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광주의 정체성, 광주의 브랜드 가치는 '인권', 구체적으로는 '오월정신', 더 구체적으로는 '5.18'이라는 것을. 아시아문화충성도시, 문화수도의 출발도 이것이었었고, 광주비엔날레가 주목받은 것도 이것이었으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문화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가 오게 된 것도 궁극적으로는 인권도시 광주의 정체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빛고를 광주의 가장 광주다운 빛도 인권의 빛, 사람의 빛, 생명의 빛이었던 것이다.

이름은 정체성의 핵심 중 하나다. 그래서 광주를 빛의 도시라 부르는 것이다. 그 빛이 때론 광산업으로, 때론 LED로, 때론 태양광으로, 때론 미디어아트로, 때론 비엔날레로, 때론 빛의 숲(아시아문화전당)으로 얘기되어 왔다. 이제는 그 빛이 인권과 만나도록 해야 한다. 인권과 예술을 결합하고, 인권과 첨단산업을 엮어, 인권이 삶이 되고 문화가 되는 광주를 만드는 것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광주를 5.18로 먹고 사는 5.18테마파크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5.18을 오월을, 아니 인권을 신바람나게, 자랑스럽게, 가슴뛰는 감동과 기대에 찬 목소리로 얘기하는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은 광주시민들의 삶의 체취, 기억, 이야기가 담긴 공간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한 공간들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알리고,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창조공간문화지도(Cultural Map of Creative Space)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자. 공간을 사랑하는, 연구하는,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 2011년 2월부터 개정된 단열법규의

## 성능을 만족시키는 친환경 건축 외벽단열재



**SUPER-ONDORI**<sup>®</sup>  
www.superondori.co.kr (한글인터넷주소 "슈퍼온도리")

### 제품특징

- 단열성 : 열적성능을 극대화하여 단열성능 우수
- 경제성 : 기밀시공으로 냉, 난방 에너지 절약
- 쾌적성 : 결로예방으로 실내의 쾌적함을 유지
- 내구성 : 급격한 온도변화에 도 제품의 물성유지
- 작업성 : 가볍고 연질의 롤타입으로 모서리, 꺾임 시공가능



제품명	종류	규격	용도
SP5000-23T	Roll Type	23mm X 1.2m X 15m	건축물 외벽 단열재
SP5000-14T	Roll Type	14mm X 1.2m X 25m	건축물 외벽 단열재

www.superondori.co.kr

S&P (주)슈퍼온도리

제조원 :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171-34번지  
TEL. 062)951-8600 FAX. 062)951-1852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일곱번째 이야기 - 모차르트의 도시,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 지도



조용준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ycho@chosun.ac.kr

- 제1화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2010년 10월호)
- 제2화 : 광장의 도시, 성당의 도시 '로마' (2010년 11월호)
- 제3화 : 건축박물관 도시, 체코 '프라하' (2010년 12월호)
- 제4화 : 천년의 도시 '부다페스트' (2011년 1월호)
- 제5화 : 음악의 도시 '비엔나' (2011년 2월호)
- 제6화 : 물위의 도시 '베네치아' (2011년 3월호)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잘츠흐강 좌우의 역사지구

유네스코는 1996년에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여 잘츠흐강 좌우의 역사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여행은 역사지구 안에 있는 중앙역 부근의 미라벨 궁에서부터 하는 것이 좋다.

이 궁은 이 도시의 정치 및 종교의 수장이던 울프 디트리히 대주교가 사랑하는 연인 잘로메 알트를 위해서 1606년에 건축한 건물로서 정원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마리아 수녀와 아이들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도레미송을 불렀던 장소로도 유명하다. 현재 일부는 시청사로, 대리석 홀은 예식장과 여러 작은 콘서트 공연장으로, 나머지 일부는 관광객에게 개방되고 있는데, 울프 디트리히 대주교는 말년에 이곳이 내려다보이는 호엔잘츠부르크성에 감금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 궁을 내려다 봐야 하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이 부근에는 1913년 조각가인 안톤 아이처가 취미로 인형극을 공연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3대째 가업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 350석의 마르네트 극장이 있고, 모차르트가 1773년부터 7년간 살았던 모차르트 기념관도 있다. 여기에서 잘츠흐강의 슈타트다리를 건너면, 15세기에 건축된 시청사와 구시가지에서 가장 변화한 보행자 전용 쇼핑거리인 게트라이데 거리, 모차르트 생가를 만나게 된다.

게트라이데 거리는 중세시대부터 문맹자를 위해서 상점의 상품을 형상화한 철재간판으로 유명한데, 지금도 200년 이상 된 간판이 걸려 있는 상점도 있다. 모차르트가 1756년에 태어나서 17세까지 살았던 모차르트 생가는 1층에는 모차르트가 사용했던 침대, 피아노, 악보, 서신 등이, 2층에는 오페라 '마술피리'를 초연 할때에 사용한 것과 같은 소품들이, 3층과 4층에는 모차르트 가족들의 생활모습을 전시하는 기념관으로 활용되어 항상 관광객으로 분비는데, 특히 기념관 앞 상점의 모차르트 초콜릿은 아주 유명하다.

광장 뒤편에는 대학광장과 대학성당, 클레기엔 성당, 프란치스카 성당, 레지덴츠궁 등이 있는데, 대학광장에서는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약초, 채소, 과일, 빵, 소시지 등이 직거래되는 시장이 열리기도 한다. 180개의 방과 3개의 안뜰로 구성된 16세기 바로크 양식의 레지덴츠궁은 잘츠부르크를 통치한 대주교의 거처이자 연주회 장소로서, 모차르트도 이곳에서 연주를 하곤 했는데, 현재는 미술관과 공식민천이나 회담, 국제 컨벤션 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이 궁 앞 광장 안뜰은 여름 페스티벌 동안에는 오페라와 세레나데공연이 열리는 장소로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마리아가 트럼페터 집의 가정교사를 하기 위해 수녀원을 나와 광장을 가로질러 가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 문화시선이 풍부한 도시

레지덴츠 광장 바로 옆에는 모차르트 동상이 있는 모차르트 광장과 잘츠부르크의 정신적 지주이자 독일 카톨릭 전파에 큰 역할을 한 잘츠부르크 대성당이 있다. 1655년에 이탈리아 건축가 산티노 솔라리가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과 바로크 양식의 절충으로 재건한 이 성당은 모차르트가 영세를 받고, 어린 시절에 자주 미사에 참석하여 파이프 오르간과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했던 성당으로서, 유럽에서는 가장 크다는 6000여개의 파이프수의 오르간을 소장하고 있다.

이 성당은 울프 디트리히 대주교가 복구공사를 하면서 조각상을 훼손하고, 지하무덤에 있는 유골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시민들의 분노를 산후에 후계자 지티구수 대주교에 의해 호엔 잘츠부르크성에 감금 당하게 되었던 성당으로서, 매년 크리스마스때가 되면, 광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린다. 광장 북쪽에는 1960년에 건축되어 매년 여름이면 세계적 축제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열리는 대축제 극장, 소축제 극장, 펠젠라이트 슐레이 등의 3개공연장으로 구성된 축제극장이 있다.

대축제 극장은 건축가 홀츠 마이스터가 설계한 2300여개의 좌석을 갖은 반팔하모니의 콘서트 극장으로서, 호엔잘츠부르크 성이 있는 뒤편 뮌히스베르크 산의 바위를 뚫어 만든 동굴극장이다.

또 1300여개 좌석을 가진 소축제 극장은 대축제 극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대극장 역할을 했던 극장으로 지금은 작은 오페라나 리시아를 공연에 이용되고 있다. 1500개의 좌석의 펠젠라이트스레는 추기경의 여름 승마학교로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트럼페터가족이 망명하기 전에 합창대회를 열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잘츠부르크 대성당

## 이 도시에 감흥을 더하고 있는 건축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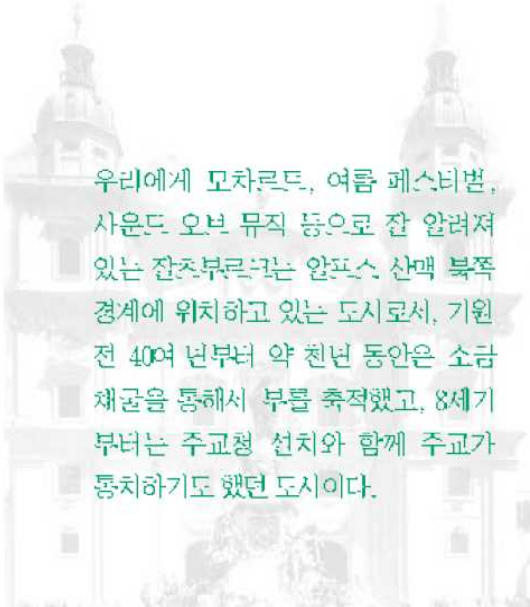
이 주변에는 모차르트 지휘로 다단조 미사곡이 처음 연주된 장소이자, 독일 문화권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서, 모차르트의 여동생과 하이든의 동생 묘가 있는 성 페터 성당도 있다. 이 성당의 뒤편에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트럼페터 가족이 합창대회 도중에 축제극장을 빠져 나와 숨던 성 페터 성당 묘지가 있다. 이 성당에서 몇 분 걸리지 않는 구시가지 남쪽 뮌히스베르크 언덕에는 1077년 게브하르트 대주교가 창건한 잘츠부르크 상징인 120미터 높이로 우뚝 서 있는 호엔 잘츠부르크성이 있다.

대성당 측면인 캐피탈 광장에서 산악기차를 타면 쉽게 오를 수 있는 이 성은 로마교황과 신성로마제국(독일황제)가 주교 선임권 문제로 투쟁이 심해지면서, 교황측이던 게브하르트 대주교가 남부독일의 제후공력에 대비하여 신축한 성인데, 현재 중부유럽의 요새형성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옛 모습을 갖고 있다. 이 성에는 대주교의 거실을 비롯하여 옛날 무기고, 고문기구, 죄수들의 방, 공예품등을 전시하는 라이너 박물관과 중세시대의 대포들도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또 매년 5월이면 이성의 3개 콘서트홀에서는 실내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데, 수동 오르간, 14세기의 세라믹 난로 등은 특히 유명하다. 성 가장 자리에는 주변을 내려다 볼수 있는 카페가 있어서, 이곳에서 구시가지와 성 뒤편의 농촌마을을 조망해보면 또다른 도시미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성의 끝자락에 있는 논베르크 수녀원, 잘츠부르크에서 남쪽으로 4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바로크 스타일의 화려한 무도회장, 매혹적이 정원과 분수가 있는 헬브른 궁전, 바로크 양식의 클레기엔 성당과 프란치스카 성당, 사유재산으로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지만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대령의 저택으로 나오는 레오폴트 스크른성도 이 도시에 감흥을 더하고 있는 참으로 매력적인 도시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우리에게 모차르트, 여름 페스티벌, 사운드 오브 뮤직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잘츠부르크는 알프스 산맥 북쪽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서, 기원전 40여 년부터 약 천년 동안은 소금 채굴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8세기부터는 주교청 선치와 함께 주교가 통치하기도 했던 도시이다.



미라벨 궁



모차르트 생가 앞



잘츠흐강 주변 (뒤편이 호엔잘츠부르크 성이다)

# 건축물 탐방 광주MBC문화방송국에서 한국 건축계의 거장 **건축사 故 김종업**의 숨결을 느끼다.



故 김종업(金重業)  
(1922 ~ 1988)

살아있는 건축이란  
문명유 의나해 나타내면  
그것은  
요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인간이 받쳐주는  
강렬한 사안이다.

- 김종업 -

## 광주MBC문화방송국(1986)

건물개요

건축물명 광주문화방송국(MBC) (Kwangju MBC)

공사분류 신축 / 설계자 - 김종업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00

시설분류 - 공공용시설 / 대지면적- 13684㎡

건축면적 - 2873.59㎡ / 연면적- 7285.71㎡

건폐율 - 21% / 용적율- 45%

설계 - (주)김종업 종합건축사사무소



### 한국 현대건축의 거장

20세기 초, 중반의 한국건축은 서구의 건축을 여과 없이 수용하던 시기였다. 이와 같이 현대건축의 불모지와 같던 우리나라의 건축적 상황에서 서구의 모더니즘을 우리의 전통문화에 잘 적용시켜 한국 현대건축으로 승화시킨 이가 바로 건축사 故 김종업이다.

그는 1952년 7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제1회 세계예술가회의에 한국대표 중의 한사람으로 참석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장단의 일원이었던 근대건축의 세계적인 거장 르 코르뷔지에(1887~1965, 20세기 최고 건축가 및 건축 이론가/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를 만나 그의 문헌에서 수학하였다. 르 코르뷔지에의 영향을 받은 그는 귀국 후 서구의 건축문화와 우리의 전통을 융화시킨 자기만의 독특한 건축세계를 펼쳐나갔다. 그러한 업적 때문에 故 김종업선생은 한국 현대건축을 선도했던 거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 故 김종업선생의 건축여정

김종업선생의 작품세계를 시대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1950년대는 스승인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세계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의 작품을 변용하면서 건축활동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 서경대학교 본관(1958) - 김종업의 초기 작품으로 97년 건축사지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밝힌 대로 이때까지는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이해를 건축물에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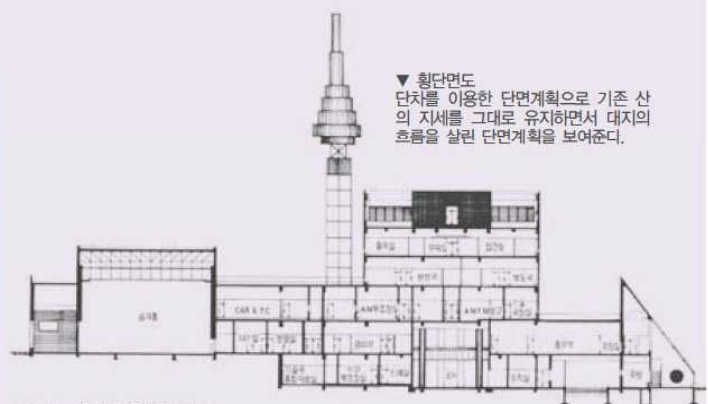
▲ 제주대학본관(1964) - 대담한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다. 다원적인 디자인 요소가 적용되어 단조로운 대신 깊이와 미묘함을 느끼게 하는 건축물로 구조적 결함으로인 해 아쉽게도 철거되었다.



▲ 서산부인묘(1965) - 살아 움직이는 곡선의 표현

그리고 1960년대 건축은 르 코르뷔지에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새로운 건축언어를 창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완공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 공간적, 구축적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작품으로, 한국 현대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을 계기로 그는 전통건축과 현대의 조합으로 새로운 건축이념을 창조했으며 이를 발전시켜 나갔다. 1972년 미국의 건축잡지 「아키텍처럴 포럼」(Architectural Forum)에 소개되기도 한 제주대학 본관(1964) 역시 현대건축에서 한국의 전통을 재현하려는 그의 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71년부터 1978년까지의 외국체류기간은 수많은 고뇌와 번민으로 가득했음 시기였고, 또한 이를 통해 인생의 성숙함과 건축적 영감을 늘리는 시기였을 것이다. 영구귀국 후 그의 건축 작업에서는 기존에 나타난 르 코르뷔지에의 영향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 대신 기술과 미학이 조화된 새로운 조형이 김종업의 건축어휘로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적정규모로 분절된 매스와 날카로운 예각으로 된 유리 박스들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조형언어들이 적용된다.



▼ 횡단면도 단차를 이용한 단면계획으로 기존 산의 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지의 흐름을 살린 단면계획을 보여준다.



▶ 본지 편집위원들이 지난 6월 28일 광주MBC문화방송국을 탐방하였다. 국가보훈시설로 내부 사진이나 설계도면을 제공받을 수 없었지만 경영관리부 관계자의 도움으로 그 당시 김중업 건축사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설계도를 볼 수 있었다.



호남지역 故 김중업 건축사 작품 (좌-전북 군산시민회관, 우-전남 목포MBC문화방송국)

**광주MBC 문화방송국**

광주에 건축된 김중업선생의 유일한 작품인 광주MBC 문화방송국은 1986년에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타계하시던 해인 1988년에 완공된 것이다. 이는 김중업의 마지막 설계 작품이나 다름없으며 그의 건축적 역량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건축은 '땅의 의지와 맞아 떨어져야 하고 건축 또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그의 건축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땅에 대한 해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산 정상에 얽혀진 광주MBC 문화방송국의 출발도 땅과 자연이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건축물은 개체로서의 생명력을 불어 넣기 위한 노력으로 출발했음을 것이다.

거장 르 코르뷔지에의 영향에서 벗어나 한국적 상황에 맞는 자신의 건축어휘를 찾아낸 김중업은 여기에서 기하학적 형태의 매스들의 분절과 조합, 날카로운 사선으로 처리된 유리 박스의 부가 등을 통한 다채로움과 비례의 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는 대지의 형상에 어울리게 살포시 얽혀져 땅의 의지와 맞아떨어져 있으며 표정 있는 건축물을 만들고 있다.

후기에 보여지는 그의 조형 언어들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건축물이 과도한 스케일로 산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적정규모로 분절되고 조합 된 매스 와 볼륨의 형태들로 산 정상에 어울리는 알맞은 스키아리온을 이루고 있다. 또 매스 와 볼륨감이 풍부한 건축물의 마감은 하늘과 땅의 중간색으로 여긴 독특한 컬러의 타일과 유리로 되어 있다. 이는 산 정상에 위치하여 배경이 되고 있는 하늘과 겹칠 때 과도한 형태감을 들어낼 수도 있는 형상을 부담감 없이 가볍게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위대한 철학의 소유자인 건축사 김중업이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한국 근현대 건축사(史)에 한 획을 그은 건축사 故 김중업, 그가 떠나간 지 올해로 만 23년이 된다. 그는 가고 없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건축물과 진리가 담긴 글과 말들은 지금도 우리를 깨우침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 시대 이 땅에 건축이란 명분으로 우리가 펼치고 있는 수많은 건축물이 근대 이후 선생이 추구하던 그 시대 그 건축에 비해 발전되어진 것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할 길을 안내해주는 것 같다.

고독한 낭만주의자 김중업선생의 건축을 향한 열정과 인생여정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되돌아보자.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축의 본질을 탐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건축을 위하여...

취재·정리 : 정영범 편집위원 jandk2008@paran.com  
서재현 건축사기자 archiseo@lycos.co.kr



아트리움 - 날카로운 예각의 사선이 본체에 첨가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유리 박스로 마감되어 있다. 현재는 식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김중업이 만든 집, 국내최초로 경매회사의 부동산 중개에 나와 - 의식있는 건축주가 서울옥션에 의뢰 할지않는 조건에 매각키로...**

한국일보 06월 28일자에는 "김중업이 만든 집, 새 주인 찾습니다" 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내용은 가회동 주택(구 한국미술관)으로 김중업의 1967년 작품이며 1980년대 초반 이탈리아 대사관저로 사용되었고, 1983년 사립 한국미술관으로 이용되었으며 주택으로 사용된 후 여러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20여 년간 그곳을 지켜온 건축주는 최근 그 집을 내놓았다. 그러자 상인시설이나 빌라를 지으려는 문의가 쇄도했다고 한다. 식구가 줄어서 큰집에 살기에 마땅치 않아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 건물에 헐리는 것은 원치 않아 고심 끝에 서울옥션에 의뢰해 건축을 보존하는 조건을 붙여 팔기로 했다고 한다. 건축사와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건축주에게 박수를 보낸다.



▲ 서울 가회동 구 한국미술관 (1967) - '기능이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쉽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형태를 기능에 따라 결정 지운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김중업의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처음에는 주택으로 출발하여 이탈리아대사관으로 또 미술관으로 다시 주택으로 기능이 변화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훌륭한 건축물로 남아 있다.

건축을 경제적 가치로만 보는 문화의식결여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많은 건축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건축된 지 50년이 안된 현대 건축물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만드는데 우리 건축인들이 앞장서야 할 때다.

**김중업 건축박물관 들어선다 - 안양시, 석수동에 2012년 착공 예정**

김중업박물관(가칭)을 짓기 위해 국·도비 31억 원씩을 지원받아 2007년 5월 부지를 매입하는 등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던 안양시는 2009년 6월 그곳에서 '안양사' 터가 발견되면서 박물관 건립 일정을 모두 중단했다.

그러나 안양시는 박물관 건립부지 아래서도 '안양사' 터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기 확인된 곳에 회랑지만 추가 발굴하면 '안양사' 터 대부분의 유곽을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돼 박물관 건립을 우선 추진하게 됐고 당초 건립 계획안대로 안양시 석수동 옛 ㈜유유 안양공장 건물 19개동 가운데 옛(故) 김중업 건축사가 설계한 5개동을 원형 보존 2011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박물관 건립공사에 착수, 2012년 말 박물관을 개관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건축물과 문화재가 조화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최종 결정된 안양시에 갈채를 보내며 김중업의 건축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어떻게 반영되고 또 그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벌써부터 기대되고 또 기다려진다.



▲ 김중업박물관(가칭)이 들어설 안양시 석수동 옛 ㈜유유 공장(1958년) 전경. 원편 공장 사무동 건물과 건물 앞에서 '안양사' 터가 발견됐다. 1958년 설계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수려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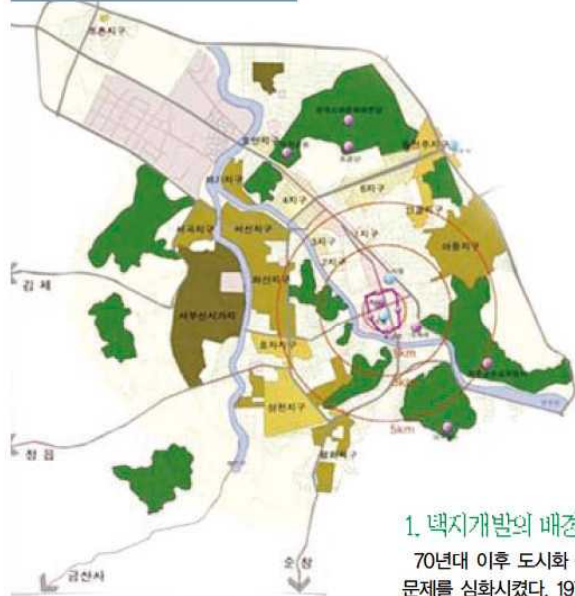


광주MBC문화방송국 전경



3층 아트트리움 공간

# 전주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의 변화



도시개발사업위치도

## 제4화 : 70년대 이후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공간의 확대 및 도심공동화

- 제1화 : 일제강점기 가로정비에 의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2011년 4월호)
- 제2화 : 일제강점기말 전주 시가지계획과 도시정비 (2011년 5월호)
- 제3화 : 60년대 공업화와 70년대 철도이전에 의한 도시개발과 공간구조 변화 (2011년 6월호)

본고는 일본도시계획학회 논문집에 발표된 1993년 성광도시 전주에 있어 성곽과 상업공간의 구조적 변천에 관한 연구 및 1994년 성광도시 전주에 있어 시구개정에 의한 공간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저서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전주의 도시형성과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본인연구로 기 발표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5회 연재 기획)



김현숙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khs4053@jbu.ac.kr

### 1. 택지개발의 배경

70년대 이후 도시화·공업화에 따른 전주의 인구집중은 주택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 1970년 59.2%의 주택보급율은 1980년 57.6%로 떨어졌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부 차원에서도 단기간·대규모의 택지공급에 대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됨으로써 개발이익의 환수와 토지공급의 확대가 가능한 공영개발인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전주시 인구 및 주택보급율 변화

구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인구수	32,816	311,432	366,997	426,408	517,104	570,570	622,238	623,804	685,007
가구수	46,665	58,325	72,862	95,181	124,911	158,685	189,042	200,108	227,704
주택수	27,627	32,654	41,986	59,453	76,644	112,131	152,001	168,883	226,761
주택보급율	92.2%	56.0%	57.6%	62.5%	61.4%	70.7%	80.4%	84.4%	99.6%

자료 : 전주시 통계연보, 각년

### 2. 택지개발과 도시의 외연적 확장

전주시의 택지개발은 총 30개 지구에서 16.07km<sup>2</sup>가 진행되었다. 1961년 도심부의 중앙간선도로인 팔달로를 전군도로로 연결시키면서 시작된 진북동 일대 1~4지구의 비교적 소규모 택지개발이 팔달로 및 전주천을 따라 북서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개발촉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는 못했다. 일단 택지로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초등학교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60~100만m<sup>2</sup> 전후의 개발규모를 필요로 했으나 1~4지구의 규모가 매우 작았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김보율의 적용 등으로 평당 지가양동(昇騰)이 야기되었으므로 대부분의 주택수요자는 지가가 저렴한 사업지구 이외의 택지를 선호한 영향도 매우 크다. 70년대 이후 도시개발의 원동력은 전주역의 이전이다. 도시 동쪽으로는 확장이 철도에 의해 단절됨으로서 1970년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 결정된 철도역 이전계획은 1977년 11월 이리역(악산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전주역이 1978년 노송동 현 시청사 위치에서 우아동으로 이전 결정되어 1981년 신속되는 매우 빠른 실행을 보였다.

전주역 이전에 따라 팔달로와 전주역을 연결하는 폭 50m의 백제로가 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1,203천m<sup>2</sup>) 및 동전주지구 주택지 조성사업(647천m<sup>2</sup>)과 더불어 개설됨으로써 동부지역의 획기적 개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6지구 개발이 업무지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완주군청, 조달청, 농협,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보건소, 우체국 등 공공시설을 대거 입지시킴으로써 빠른 속도로 완성되어 갔으며, 팔달로 중심의 도시구조가 백제로 중심으로 이동되는 계기가 되었다.

###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구분	개소	면적(km <sup>2</sup> )	비율(%)
소계	30	16.07	100.0
토지구획정리사업	13	9.69	60.3
택지개발사업	11	5.22	32.5
주택지조성사업	5	1.13	7.0
대지조성사업	1	0.03	0.2

비슷한 시기인 1980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개설된 다강교-병무청간 폭 25m의 총경로(관통로)는 1938년 전주시가지계획에서 확정된 노선이나 그간 밀집시가지지를 형성하고 있었던 만큼 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노선의 개설로 인해 도심과 연계가 용이한 서부지역에 효자지구·화산지구·삼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가능케 함으로써 전주천과 완산공원 등 하천과 산악지형의 장애를 뛰어 넘어 서부지역이 개발되는 초석으로 작용하였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는 시가지의 동측에서는 6지구와의 연계성에서 안골지구가, 동부우회도로와 안골지구 및 구도심과의 연계에 의해 아중지구가 개발되었다. 아중지구 개발규모는 2,043천m<sup>2</sup>로 현재까지 개발된 택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며, 감보율 50%를 적용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서는 공공시설용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39.2%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기존의 지형적 특성이 일체 무시된 점과 상업시설용지의 과다지정(5.2%)에 따른 숙박 위락시설의 집중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가지의 서측에서는 백제로의 연장(중합경기정-서원로) 및 서부우회도로의 개설에 힘입어 서신지구가 개발되어 화산지구 및 효자지구와 연계되면서 삼천지구 및 평화지구까지 화산로를 따라 하나의 개발축으로 이어졌다. 이곳에서는 고밀도 아파트 중심의 택지개발이 집중됨에 따라 거주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생활권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서신동 일원에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상업기능특화가 도모되었다. 현재 서부지역의 시가지화는 삼천을 건넌 서부신시가지까지 확장되었으며, 행정타운조성을 목적으로 도청 및 경찰청이 이전하여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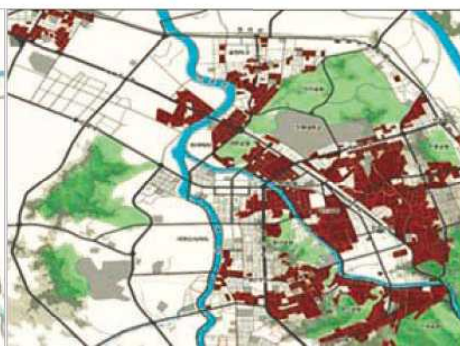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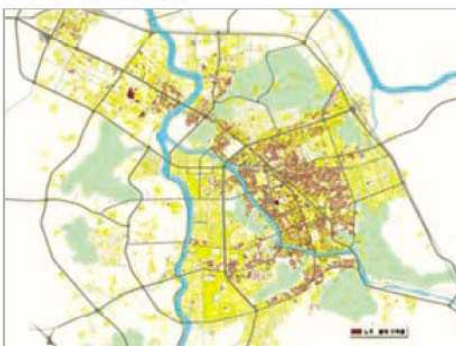
2011년 현재에는 시가지의 북서측에 혁신도시 10.15km<sup>2</sup>, 법조타운인 복합단지 1.65km<sup>2</sup>, 35사단 이전부지인 에코타운 1.95km<sup>2</sup>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도시의 외연적 확장은 지속될 것이다.

### 3. 도심공동화

택지개발의 결과, 주택보급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도시 외곽에서 발생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이동은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야기시켰다. 중앙동·태평동·풍남동·교동·노송동 등 구도심의 가구 및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대까지 인구증가를 보이던 덕진동·금암동 등 60~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지역에서조차도 서서히 감소추세에 들어섰다. 반면 서신동·효자동·삼천동·평화동 등의 서부지역은 90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으로 개발여력을 잃은 구도심은 대부분의 지역이 물리적 노후화에 의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갔으며, 오늘날이 되어서야 도시재생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노후 시가지 분포도(좌,우)



동별 인구증감율(97/07년도)



도시 외곽에서 발생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이동은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야기시켰다. 진주시 중앙동·태평동·풍남동·교동·노송동 등 구도심의 가구 및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전문가 노경윤 건축사



건축사 노경윤은 도시행정, 주민자치, 시민운동, 사회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전문가이다.

노경윤 건축사의 활동영역이 워낙 넓으리라 어렵게 약속을 잡아 서재형, 박종호 건축사기자와 함께 (주)토마 건축사사무소를 찾았다. 인터뷰 중간중간에 걸려오는 여러 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그리고 찾아온 손님들이 그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짐작케 했다. 한 시간가량 이어진 대화내용을 지면으로 옮겨보았다.

## 건축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가난한 농촌환경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진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업에 종사하시던 아버지와 건축과 학생이었던 사촌형 그리고 토목업을 하셨던 고모부의 영향을 받아 목포공업고등학교 건축과에 진학하였습니다. 그 후 초당대학교 건축학과를 거쳐 만년에는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 건축작품을 소개해주신다면?

지방도시에서 어렵게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입장이라 작품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암푸르지오 아파트와 옥암동성당은 애착이 갑니다. 저만의 색깔을 지닌 작품다운 작품이 없다는 것이 아쉽고 부끄럽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각오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핑계같지만, 대형 프로젝트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한계, 소규모 사무소는 참여조차도 할 수 없는 PQ 등 제도적인 문제, 물가는 올랐는데 용역비는 오히려 추락하는 경제적인 문제 등이 작품활동을 불가능케 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건축사들이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 목포옥암동 성당(2003)



옥암 대우푸르지오아파트

## 사회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하시던데...

제가 사교성이 좋아서 그런지 여러 분야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중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고, 6년 동안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대

표적을 수행하면서 부정부패 감시활동, 장묘문화개선운동, 사학비리 척결운동, 미항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발족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아 주민 발의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함으로써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과 이동권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시민과 함께하여 지자체와 협력하는 시민단체로서 시민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시민운동, 사회봉사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의원 출마를 권유받게 되었고, 당당히 시민들에게 선택받았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신 시민들의 기대를 알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주민자치, 시민운동, 사회봉사 등에도 적극 참여

## 앞으로의 계획과 하고 싶은 말씀은?

건축사는 전문가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건축문화 창달과 발전은 물론이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개발로 전문성과 사회적 역량을 갖춘 건축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건축사들은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지역정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축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저 또한 지역의 삶과 특성을 담아내는 건축사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생활정치인,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의원, 열정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회운동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남 / (주)토마 건축사사무소 노경윤 대표 (現 목포시의원)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건축인으로서의 활동도 대단하지만, 시민과 함께 사회에 참여하는 행보도 또드러져 보인다.

전남남도건축사회 회장을 역임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건축활동과 작품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러면서도 목포경찰실련(6년간 대표 역임), 목포기항가꾸기 시민운동본부(회장), 학교운영위원회, 농지치위원회, 목포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등 수많은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리고 현재는 목포시의원으로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취재·정리 : 천경준 건축사기자 damu2003@hanmail.net  
서재형 건축사기자 archiseo@lycos.co.kr

# 각종 설비배관 내진설계 및 면진설계 내진시공장치 개발 완료!

안전하고 편리한 조립식 시공!  
지진추 원리를 응용해 100% 내진안전성 확보!

## 내진 및 면진설계 내진시공! 내진특허 신기술 신제품!!!

각종 설비배관 (소방설비배관, 기계설비배관, 덕트배관, 통신설비배관, 전기트레이배관)

### 내진설계 적용 및 내진시공현장

1. 00부대 7탄약창 통합병영 생활실 소방통신, 전기설비배관, 내진스프링안전행거, 내진체인 스프링가대, 내진설계적용
2. 의정부 경전철 신축 기계설비공사현장, 내진스프링 안전행거 시공
3. 광주 수원 대방노블랜드 기계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샘플시공(황주관)
4. 2011년 6월 인천시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금상 수상-인천 가좌고등학교

플림 방지 장치·스프링 내장형 "내진스프링 행거", "내진 안전 행거"



기계 설비, 통신 설비, 전기 설비, 트레이 내진설계용 "내진 체인 스프링가대"



주 헌 건 설(주)  
주헌내진특허산업(주)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69 모아상가 202호 E-mail: ks-1144@hanmail.net  
TEL : 0502-605-1144, 1155, 1166 FAX : 0502-605-1177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는 상시 볼거리를 제공하고, 바닷길이 열리는 타 시군보다 비교우위 선정 및 차별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92-1일원에 총사업비 4,800,000천원으로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을 연면적 1,200㎡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다. 본 건축설계경기에서 당선작은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우수작은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가작 (주)씨엔건축사사무소 안이 선정되었다.

- 당선작 건축사사무소 미가온\_ 이순미 건축사
- 우수작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_ 박동준 건축사
- 가작 (주)씨엔 건축사사무소\_ 남상득 건축사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및 전시물 신축공사

### 당선작

건축사사무소 미가온\_ 이순미 건축사

/부지면적 : 4,176.53㎡ /건축면적 : 1,206.56㎡ /연면적 : 1,387.20㎡ /건폐율 : 28.89%  
/용적율 : 33.2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모 : 지상 3층  
/외부 마감 : T24 저반사유리, 티타늄아연판, THK18M칼라복층유리



### 우수작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_ 박동준 건축사

/부지면적 : 3,874.61㎡ /건축면적 : 829.76㎡ /연면적 : 1,230.90㎡ /건폐율 : 21.42%  
/용적율 : 31.77%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 지상 2층  
/외부 마감 : 알미늄 쉬트, 알미늄패널, 목재패널, 로이복층유리, 화강석 자연석 쌓기



### 가작

(주)씨엔 건축사사무소\_ 남상득 건축사



/부지면적 : 4,132.15㎡ /건축면적 : 936.33㎡ /연면적 : 1,353.48㎡  
/건폐율 : 22.66% /용적율 : 32.75%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모 : 지상 3층  
/외부 마감 : 고강도목재패널, 고강도 AL쉬트, 로이복층유리, U글라스





## 제24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입상자 발표

- 건축 부문 최우수상, 'Humming Forest is Play in shade'



최우수작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24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입상작 발표가 지난 5월 말 진행되었다.

심사결과 건축 부문 총 40여 출품작 중 대상 작품은 선정되지 않았으며 박유진, 허지혜, 한강우 씨 팀의 'Humming Forest is Play in shade'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김예루, 조대현, 김민비 씨 팀의 'URBAN SEWING'의 4개 팀 작품은 특선 수상, 입선 13개 팀 작품 등이 선정되었다.

구분	성명	작품명제	비고
최우수상	박유진, 허지혜, 한강우	Humming Forest is Play in shade	
특선	김예루, 조대현, 김민비	URBAN SEWING	
	정은지, 명귀순, 이윤희	C3 Layers	
	이수식, 나하라	REGENERATE ACTIVITY	
	김명현, 김희연, 김동준	piece of Memory	
입선	김창현, 김윤하, 김경훈	Culture, Dive to Nature	
	선정준, 이형태, 윤희중 외 12팀	에너지를 품다	외 12작

## 전북대학교 '한옥 설계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돼

- 건축사 등 대상 모집하여 전액 무료로 6개월 교육 들어가

전북대학교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한옥 설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에 선정되었다. 지난 6월 7일, 이 대학은 국토부와 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한옥 설계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에 돌입하였다.

국토부는 전북대에 교육비 3억 원을 지원하였다. 전북대는 한옥 설계에 관심이 있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자를 대상으로 4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였으며, 전액 무료로 평일 야간반과 주말 중일반 등 6개월 과정 교육을 마련해 추진하였다.

## 제47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입상자 발표

- 건축 부문 우수상, '허물을 벗다'



우수작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예총전라남도연합회가 주관한 제47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입상자가 지난 6월 21일 발표되었다. 건축부문 대상 수상자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우수상에 박용찬 씨의 '허물을 벗다'가 선정, 특선에 박민우, 오민정, 김서현 씨 팀의 '경험을 통한 경험아'와 9개 팀 작품이 선정되었고, 입선에 이훈희, 문성현, 선정준 씨 팀의 '환경에 대하여 : 광주환경센터계획안' 외 15개 팀 작품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오는 7월 15일 오후 3시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3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작품 전시는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 전시실과 여수 진남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나누어 열린다. 자세한 일정은 한국예총전라남도연합회(062-351-7506)로 문의하면 된다.

구분	성명	작품명제	비고
우수상	박용찬	허물을 벗다	
특선	박민우, 오민정, 김서현	경험을 통한 경험아	
	박호형, 임영재, 노윤진	공간에서 풍경을 담다	
	허지혜, 최소잔, 박유진	Furniture Factory	
	김미리, 정창균, 윤 설	The Insertion Of The Bridge	
	나하라, 이수식	Toward The Open	
	김윤하, 김창현, 박선용	건축 그 역사와 자연 속으로 녹아들다	
	남호성, 문철진, 장성혜	문화를 산책하다	
	이미진, 박세현, 이창현	RESPIRATION THE HEART OF THE CITY	
	김준영, 박동열, 박민철	Performance Art Village	
	주상남, 오은규, 허성은	문화를 가르치리다	
입선	이훈희, 문성현, 선정준 외 15팀	환경에 대하여 : 광주환경센터계획안	외 15작

#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 그리기대회

1. 공모주제  
- 도시공간 (건축물 + 구조물 + 조경,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리기)

2. 참가대상 및 참가부문  
-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 초등학교 (초학년 1~3학년 / 고학년 4~6학년), 중학교 재학생

3. 작품장수  
- 접수기간: 2011. 9. 1 (목) ~ 2011. 9. 15 (목) PM 6:00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4. 작품요약  
- 면적은 1인당 1작품에 한하여, 별도의 도화지 배부는 없습니다.  
- 작품규격: 캔버스 4장지크기 38cm x 53cm, 초등학교 재학생은 유성지도 가능  
- 참가비 없고 참가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gkna.kira.or.kr>)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 이름, 학교명, 학년반번호, 직통번호, 작품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접수방법: 당일제출 및 우편제출  
- 주소: 500-870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도시문화제(사) (사)광주건축도시문화제 사무국  
- 우편제출의 경우 우표 15달러(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처: (사)광주건축도시문화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번지)

5.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 수상자 발표: 2011. 9. 30 (금) <http://gkna.kira.or.kr>를 통하여 발표  
- 시상식: 2011. 11. 5 (토) 여흥문화센터  
- 전 시: 2011. 11. 3 (목) ~ 11. 6 (일) (금대중학생연선반)  
- 시 상: ① 초·중등부  

- 최고상 (3점): 광주광역시교육감상 및 30만원 상당 상품
- 금 상 (4점): 광주건축도시문화제상 및 20만원 상당 상품
- 은 상 (8점): 광주건축도시문화제상 및 10만원 상당 상품
- 동 상 (15점): 대한건축학회공로상 및 5만원 상당 상품
- 입 선작가상: 한국건축가협회광주지회상

 ② 유아부  

- 최우수상(2점): 10만원 상당 상품 / 1점
- 우수 상(5점): 5만원 상당 상품 / 1점
- 입 선작가상: 3점

6. 주최 및 주관  
- 주최: 광주광역시  
- 주관: (사)광주건축도시문화제  
- 후원: 광주광역시교육청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도시문화제(사)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홈페이지(<http://gkna.kira.or.kr>)  
Tel. 062521-0025-6 Fax. 062528-0026

광주광역시 [www.gj.go.kr](http://www.gj.go.kr) | 광주건축도시문화제

#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사진 공모전

1. 출품작품  
- 작품내용: 아름다운 도시 공간 (건축물 + 구조물 + 조경 + 공작품)

2. 출품지역  
- 공모지역: 건축과 사진에 관심 있는 모든 자

3. 작품장수  
- 접수기간: 2011. 9. 1 (목) ~ 2011. 9. 15 (목) PM 6:00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작품규격: 11" x 14" A4 사이즈 사진 4장까지 접수  
- 제출서류: 작품 관련 또는 JPG 동영상(사이즈 800x1,000 pixel 2MB 이상)과 참가신청서 제출  
- 등 록 비: 당일 (1인 2작품 이내)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http://gkna.kir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접수방법  
- 접수방법: 당일 및 우편접수  
- 접수처: (사)광주건축도시문화제  
500-870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도시문화제(사)

5. 입상작 발표  
- 2011. 9. 30 (금) 홈페이지(<http://gkna.kira.or.kr>) 게재 및 개별 통지

6. 시상  
- 최우수상 1인당: 상함 및 상금 100만원  
- 우수 상 2인당: 상함 및 상금 50만원  
- 장려 상 4인당: 상함 및 상금 30만원  
- 입 선 14인: 상함 및 기념품

7. 기타사항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상자의 작품과 촬영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사에 귀속됩니다.  
- 출품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단 공모전 입상작으로 발표될 경우 입상이 취소(상당) 및 상금은 주최측에 반환됩니다.  
- 입상작품은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2011. 11. 3 (목) ~ 11. 6 (일) / 금대중학생연선반) 기간 중 전시

8. 주최 및 주관  
- 주최: 광주광역시  
- 주관: (사)광주건축도시문화제  
Tel. 062521-0025-6 E-Mail: [gkna@empal.com](mailto:gkna@empal.com)

광주광역시 [www.gj.go.kr](http://www.gj.go.kr) | 광주건축도시문화제

## 영광 문화예술회관, 국제공공디자인대상에서 대상 받아

- 전남(주)유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종일 건축사 설계 작품



전남(주)유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종일 건축사가 설계한 영광 문화예술회관이 한국 공공디자인지역지음재단과 국제공공디자인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한 '국제공공디자인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하였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작품을 공모해, 총 8개국 331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 영암 F1경주장과 강진청자축제 포스터가 공공부문 무형분야 대상에 영광 문화예술회관이 공공부문 유형분야 공공건축을 대상에 선정되었다.

평가는 시설물의 안전성, 유니버설 디자인, 경제성 및 환경친화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융합적 심미성 등 5개 부문에 걸쳐 이뤄졌으며, 영광 문화예술회관은 효율성과 건축디자인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상작에는 세계적 디자인 수준을 입증하는 GPD(Good Public Design)와 PDA(Public Design Award) 인증마크가 수여된다.

## 전남대학교, 국제적인 수준의 건축디자인 워크숍 개최

- 제3회 CNU International Summer Design Workshop



전남대학교는 제3회 CNU International Summer Design Workshop을 주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친환경 통합 건축설계'로 좀 더 학생들이 친환경 건축물 설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워크숍은 국제적인 수준의 건축디자인 교육을 경험하고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로 전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2011년 Design Workshop은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Steve King교수와 Jin Woo교수, 전남대학교의 유우상 교수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다.

## 전북지역 건축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 개최

- 전주시건축사회 주관,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 참석



전주시건축사회(회장 김남중) 주관으로 2011전라북도 건축유관기관 체육대회가 지난 6월 18일 전북 완주군 도립미술관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시건축사회 회원들을 비롯하여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 전주시청, 김제시청, 완주군청 등 건축사와 건축직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하여 축구와 족구, 줄다리기 등의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오늘의 건축유관기관 체육대회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김제시 부시장과 전라북도 토지주택과장,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장, 전주시 주택과장 등이 참석하여 대회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해 주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체육대회는 전북 지역 건축 관련 기관(단체)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축제의 장으로 성장하였다.

## 전북건축사회, 원광대 건축학과(5학년)와 간담회 개최

- 이성업 회장, 실제적용사례 들어가며 '건축사 역할의 중요성' 강조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지난 6월 13일 원광대학교 건축학과를 방문하여 5학년 학생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건축사회 이성업 회장을 비롯하여 이정호 부회장과 이길환 홍보위원장이 참석하여 건축사협회 소개와 건축사 제도, 건축설계 분야의 미래 가능성과 건축학 전공자의 진로지도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예정자 28명

이 참석하였다.

이성업 회장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에서의 실제적용사례를 들어가면서 건축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율러 "대부분의 산업분야가 개발시대의 양적성장시대에서 질적 성장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또한 건축분야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하고, "현재 건축사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설계 능력을 갖춘 건축사에게는 더 많은 설계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역량도 높아 질 것이므로 건축사의 미래는 밝다"고 말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도 건축사 업계의 현황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자리를 마련해준 전북건축사회에 감사사를 표했다.

## 전라북도 주택 문화 발전을 위한 워크숍 열려

- 전북도청 토지주택과 주관, 건축 정책 및 건축 문화 발전 도모코자



전북도청 토지주택과 주관으로 "전라북도 주택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워크숍"이 지난 6월 30일, 전북 완주군 소재 대둔산 관광호텔에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건축직 공무원, 전라북도 건축사회 이성업 회장을 비롯한 다수 회원,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전라북도청 토지주택과 공무원의 소통과 변화하는 건축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축정책 및 건축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관계 공무원 6인의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에 이어 우석대학교 문수자 교수의 '웃음과 성공적인 삶', 군산대학교 김병욱 교수의 '전북 경관계획과 공공 디자인의 현상태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참석자 모두 대둔산 등반을 통하여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 또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한 관계 공무원은 "공정하고 보다 나은 건축행정과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 광주시 장상근 前 국장, 광주건설협회 부회장으로 취임

- 지난 6월 10일, 상임부회장 겸 사무처장으로...

광주시 건설방재국장을 역임하고 올 4월에 33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장상근 前 국장이, 지난 6월 10일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상임부회장 겸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였다.

장상근 부회장은 광주시 재난관리과장과 건축주택과장, 종합건설본부장, 건설방재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4월에 퇴임하였다.



## 건설분쟁! 공정한 평가



"건설분쟁은 공정한 평가와 대화로 해결된다."

감정인 건축사 정태호

25년 공사원가분석  
15년 법원 공사비 감정 위원

TEL:(062)512-8044 HP:010-3602-3378

www.gitech.co.kr

##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21C를 주도하는 성실한 기업

건축분야

1. 방수 : 제트스프레이 도막방수, 프레스 복합방수
2. 창호 : AHC단열복합창 및 AHC DOOR
3. 외장 : 합성목(데크, 사이딩) 및 와이즈보드시스템
4. 보수. 보강 : 탄소섬유앵커, 하이-리페어(단면복구)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2동 1383 T)062)525-7177

전남: 전남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591번지 T)061)394-7184

방수 · 창호 · 외장 · 보수 보강 전문업체





## 베란다 텃밭을 가꾸며

강선영  
출판 프리랜서



그동안 우리 집에서는 식물이 수난을 당해왔다. 가끔 남편과 아이가 함께 산책이라도 나가는 날에는 어김없이 작은 화분에 담겨 있는 식물을 의기양양하게 사들고 오기도 하고, 가을이 되면 가족 중 누군가가 국화 화분 등을 선물해 주기도 했지만 도무지 사후관리가 안 되어 말라 죽이기 일쑤였던 것이다. 개 두 마리 텃밭라지에도 정신이 없는 나는 "당신들이 모셔온 생명, 당신들이 관리하라"고 엄포를 놓곤 했지만 그들은 '입양자 따로, 관리자 따로'라는 그들만의 원칙에 충실하다. 그러니 이래저래 가엾은 것은 스스로 물을 찾아 움직일 수 없는 식물들일 수밖에.

그러던 우리집에 대대적인 베란다 텃밭이 들어앉게 되었다. '대대적인'이라는 표현이 좀 거창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나무로 텃밭 틀을 만들고 기름진 발흙과 상토, 부엽토에 각종 씨앗까지 등장하였으니 그동안 빈곤하기만 했던 우리 집의 식물사로 보아서는 가히 기념비적인 공사가 된 것이다.

일이 이렇게까지 진척된 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쌀을 주문해 먹는 귀농인 카페에서 진행한 '베란다 텃밭 대작전'이라는 동농 간의 소통 프로젝트에 살림살이 관리자인 내 스스로 귀가 솔깃해졌던 탓이다. 더욱이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축하하느라 꽃다발을 싫어하는 식구들의 성향 탓에 안세리움 화분을 하나 들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버티며 잘 자라주는 안세리움의 생명력에 식물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다고나 할까.

가로 50cm, 세로 30cm 남짓한 우리집 베란다 텃밭에서는 오이 두 그루와 호박 두 그루, 딸아이가 먹고 심은 수박 씨앗 하나, 언제 싹이 날 지 알 수 없는 체리 씨앗 하나, 그리고 팔 대어섯 그루, 식용보다는 관상용으로 적합한 각종 쌈 채소 열 포기 정도가 자라고 있다. '식물도 사랑을 주어야 잘 자란다'는 농부님의 말씀대로 식구들이 매일 베란다를 드나들며 텃밭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나눈다. 세 식구가 작은 텃밭 앞에 머리를 웅기종기 맞대고 앉아 이러쿵 저러쿵 매일매일 달라지는 텃밭 관전평을 하고 있노라면 늦둥이를 키우는 것처럼 살가운 재미가 쏠쏠하다. '식물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 치마에 불붙은 누이 문형석 시인/건축사 우리 건축사사무소

모든 것이  
작물처럼  
사후관리  
치마에 불  
한편의 시  
한편의 시

문형석 시인/건축사  
우리 건축사사무소

시인 문형석  
건축사 문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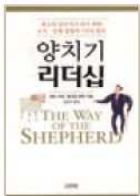


Book

## 양치기 리더십

글쓴이 : 케빈 리먼, 윌리엄 펜텍 옮긴이 : 김승욱 펴낸곳 : 김영사

박지영 과정  
(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



인터뷰 거절하기로 유명한 GT(제너럴 테크놀로지)사의 대표 맥브리드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 한 젊은 기자가 GT사에 방문하여 재정이 튼튼하고 인재들로 이루어진 기업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맥브리드의 과거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이다.

MBA 과정의 마지막 과정인 시험과 졸업을 앞두고 맥브리드는 GT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신이 컨트를 해야 하는 직원이 9명이나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맥브리드는 자신의 교수를 찾아가게 되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와 만남을 통해 한 그룹의 리더로써 갖춰야 할 소양과 미덕 그리고 능력과 가치관 등을 깨우치며 익히게 되는 것들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교수는 자신의 제자에게 양치기와 양들을 통해 한 조직과 조직을 이끌어가는 자와 조직원들을 묘사하여 자연스러운 통치법을 통해 가르치기 시작한다.

주말마다 맥브리드가 자신의 뇌리에 깊게 인식할 이야기는 양치기로서 지켜야 할 자격들을 알려주는데 양들의 상태, 뒤통이를 알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이 보호받는다 하는 것과 믿음, 개선할 방향과 그릇됨의 이치를 잘 파

악하여 한 무리의 양들에서 한 마리의 양도 벗어나지 않게 하는 양치기의 마음가짐들이다.

단순히 리더로서의 자격을 이 몇 줄로 적기에는 쉽지 않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자신과의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지 등이 이 책에는 잘 담겨져 있다. 때로는 자상한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냉철한 사업가의 이상적 판단과 울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여 울음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조장하고 그름에 대한 채찍과 함께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래개선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절대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배 위 선장의 선택을 고루고루 지켜야 하는 양치기의 마음을 맥브리드는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된다. 이러한 배움을 반성하며 그는 평생의 교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배움을 실천하여 이룩한 것이 지금의 GT사임을 언급한다.

이러한 양치기들이 여럿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재라는 소중한 재산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발전하는 소중한 보양토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리더로서의 소양뿐 아니라 그름에 속하는 한 명 한 명의 그름 구성원들 간에 지켜야 할 소양이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그름의 구성원들이 미래에는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것임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 白日夢\_백일몽

서민석 학생기자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건축문화사랑 대학생 기자단은 김투를 쓴 자가 벌써 1년이다.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닌 혹은 대단한 여정을 했던 지난 1년을 자축하며 대중기요한 가락 읊조려 보련다. 부디 날씨가 화창하고 맑은 오후, 청바지를 내다보며 음미하기를...

1년은 짧지만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1년은 짧지만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1년은 짧지만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1년은 짧지만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1년은 짧지만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1년은 짧지만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1년은 짧지만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날씨가 무지 덥다. 오늘은 동근 사발에 담긴 시원한 냉면 한 그릇 해아겠다. 출발!



### 만사

한 달 두 달 선달이 되거나 했는데 어느새 벌써 해산을 하고 마데 아니 거참 금구술 은구술이 쏟아 질 줄이야..

강성철 건축사디자인그룹 현대작

유화 30x42cm



### 발고량

할아버지 얼굴의 깊은 주름은  
춤 발고량과 같다.  
모진 풍파와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 낸  
할아버지의 깊은 주름과 흔들림 없는  
저 미소는  
손자의 맑고 밝은 웃음과  
전진함을 피어내기 위한  
발고량이었으리라.

발고량

박은영 독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ISO 9001인증

# 팽이 기초 공법

중·저층 건물의 지지력 증대와  
침하억제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는 경제적인 기초 공법

## 시공사례



동구국민체육관



전남대 바이오하우징



동신고체육관



건국대 제2민자 기숙사



군산인력개발원





#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midas eGen 제품설명회, 500여 명의 전라도 건축사님들과 함께...



midas eGen 설명회 시연

midas eGen 설명회(광주)

midas eGen 설명회(전남)

midas eGen 설명회(전북)

##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eGen은 저층건축물 구조설계 프로그램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이다스아이티는 온/오프라인 기술강좌, 세미나 및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서비스하여 대한민국 저층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월 8일  
출시

### midas eGen 출시기념 특별 사전구매 행사안내



~~1,000~~만원  
(정상가)

50% off

500만원  
(50% 특별할인가)

### midas eGen만의 특별한 장점

- 1시간 이내에 전문가 수준의 구조설계를 완성합니다.
- 설계과정 중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즉각적으로 구조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내진설계와 고품질의 구조계산서와 내진설계 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인 건축주, 행정관청, 시공자가 가진 니즈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대외적 신뢰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어 주주에도 큰 도움을 드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 제품 및 프로모션 문의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 울 김재승 | 031,789,2104

경 기 박기홍 | 031,789,1996

충청/강원 이혜린 | 031,789,4268

영 남 최홍배 | 031,789,2122

호남/제주 신의균 | 031,789,2151

[www.midas eGen.com](http://www.midas eGen.com)

고객지원센터 1577-7618